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시대정신    제목 : 이 시대의 트렌드    성경:  
요한계시록 2장 8-11절

8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 나신 이가 이르시되

9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 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 이라

10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십 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11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 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계2:8-11)

이 시대 트렌드의 특징은

- 다양하다. 원래 다양 했겠지만, 이제는 그 다양성을 접할 수 있게 되어서 변화가 빠르고, 전 세계적인 트렌드를 경험하게 된다.
- 합리성, 편리성, 멋스러움, 솔직함을 추구한다.
- 그룹을 만들어 함께 살아간다.

시대적 트렌드를 빨리 감지하고 그 바람을 타는 사람은 승리한다. 또는 비록 뒤쳐진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우수한 그룹에 들어가 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승리한다.

시대는 변한다. 변화하는 세대에 여전히 잘 적응하고 결국에는 살아 남은 교회가 서머나교회이다.

그래서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언급할 때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다.

8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 나신 이가 이르시되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죽어야 한다. 죽은척 해서는 안된다. 진짜

죽어야 한다.

이 시대의 트렌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나는 완전히 청산되어야 한다. (아이콘은 스티브 잡스. 그는 혁신을 이야기 할 때 아예 반대로 생각했다. 그는 대학을 중퇴하고 회사를 차렸다. 그는 IBM에게 밀리고 넥스트컴퓨터로 망하고 아이팟으로 다시 시작했다.)

9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정확하게 자신이 격고 있는 환난이 무엇인지, 궁핍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대충 생각하면 앓된다. 그 고통을 체험해야 한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하는 것이 진짜 용기가 된다.

솔직한 것처럼 강한 것은 없다. 까발리라는 것이 아니다. 자기에겐 솔직한 만큼 더 분명하게 미래가 보인다.

-그래야 내가 얼마나 부요한지를 알게 된다.

-주님 앞에 솔직할 때 주님이 내 눈을 열어 주신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들 중에서 부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신다.

(천호식품 김영식회장의 자살할뻔한 스토리)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쟁. 사람들은 삼성이 고개를 숙일 줄 알았다. 왜냐면 중요한 납품처이기 때문에. 그러나 삼성을 그러지 않고 싸웠다. 그들은 비방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매출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나름대로 팔아먹을 자신이 있었다. 애플에 팔아먹는 것보다 소비자들에게 직접 팔 때 더 큰 이익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분명히 아이폰은 명품이다. 그러나 삼성처럼 잘 팔아먹지는 못한다.)

-비방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자존심이 죽는 것을 의미한다. 실리를 챙기는 것이다. 자존심을 생각하면 곧 망하게 된다.

-진짜 자존심이 죽을 때 비로소 내가 무엇이 부요한지를 알게 된다.

-그리고 무엇이 나의 가장 큰 적인지 알게 된다. 그들은 사실 사탄이다. 사람이 나의 적이 아니라, 사실은 사탄이 나의 적이다. 내가 사탄과 싸우는 것이다. 사람과 싸우려 들지 말라.

-나의 전쟁은 사실 영적인 전쟁인 것이다.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전쟁이 아니다.

10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불지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십 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게 주리라

그리고 나의 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두려움이다.

내가 고난 받을 까 두려운가? 그렇다면 지는 것이다.

내가 보잘 것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 나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도 잊지 말자. 내가 사악한 죄인은 아닐지라도 충분히 부족한 존재이며 실수투성이라는 것도 잊지 말자.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부르짖는 것이다. 우리는 피를 흘릴 것이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고난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다. 서머나교회도 몇사람은 10일동안 고난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죽임을 당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 교회는 그 후로도 약 150여년을 고난당하다가 놓임을 받았다. 그러므로 고난이란 모든 세대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고난의 시대에는 역시 열정이 가장 큰 가치가 된다. 내가 부족하다고 웅크리고 있으면 안된다. 내가 가난하다고, 배운 것이 없다고, 경험이 부족하다고 초라하게 지내면 안된다. 열정으로 배우고, 실패를 통해서 경험하고,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견뎌야 한다. 어차피 불꽃은 성냥 한 개비로 일어나지 않는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장수는 열정이다. 열정을 이겨내는 고난은 없다. 열정은 참으로 선하고 멋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항상 긍정하라. 이것이 가장 건강한 태도다. 긍정하는 건강한 태도가 트렌드다. '죽어도 걱정하지마, 우리는 부활할 것이니까.'  
아멘.

-큰 가치를 위해 희생하라.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다.

<찬양예배>

주제:수치    제목:수치를 해결하는 다윗    말씀: 사무엘하 19장1-15절

1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 다 하니

2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 날에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 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3 그 날에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4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이 내 아들이 하니

5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 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6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더라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7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의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8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으며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9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10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 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11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

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12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골육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13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14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 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갈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15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삼하19:1-15)

당신의 여가시간을 주의하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제대로 준비하자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영혼이 병든다.

가난은 불편하기만 한게 아니라, 불리한 것이고, 모든 성장을 막는 것이고, 병약하게 하는 것이다.

자랑스럽지는 않아도 가난을 숨기는 것은 더 가난한 것이다.

가난은 죄가 아니냐 가난하면서도 그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죄다.

빛이 있는 것은 그냥 수치스러운 것이지만, 빛이 있어도 종살이를 하지 못하는 것은 큰 수치이다.

드디어 압살롬이 반역을 하였다.

그는 다윗의 아들 중 가장 외모가 출중하고 대중에게 인기있는 왕자.

그러나 그는 유다가 아닌 이스라엘에게 인기를 얻고 있었다는 것이 치명적 약점.

다윗의 실수로 자초된 반역

-그는 이스라엘을 등용하는데 세심하지 못했다.

-그는 압논과 압살롬의 갈등에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두 사람이 사랑하는 아들이었으나, 후계자 감은 아니라고 여겼다.

-그러나 압살롬에게는 야심이 있었고, 다윗은 그가 순전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돕기를 바랐다. 왜냐면 그는 형을 죽인 죄가 있으므로 그저 대신으로 충성하면 가장 좋았다. 그러나 그는 반역하였다.

-그는 온유하기 원했으나 압살롬은 아버리를 수치스럽게 하였다.

-다윗에게는 후궁이 많았고, 그것이 그에게 수치가 되고 말았다.

-후궁들은 함께 갈만한 충성심도 없었고, 그들을 챙겨갈 군사들도 없었다. 이래저래 수치스러운 일.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흙먼지를 날리며 다윗을 모욕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아들의 반역에 비교했을 때 사소한 것이었다. 당사자가 아니면 흥분할 일이지만 당사자는 오히려 덤덤하였다.

-다윗은 수치스러운 채찍을 담담하게 견디어 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후세는 다윗의 수치를 헤아리는 사람이었다. 그는 가장 적극적으로 다윗이 수치를 벗고 영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운 사람이었다.

-다윗은 수치를 헤아리고, 가려주고, 함께 슬퍼해 준 사람들을 잊지 않았다.

-그러나 압살롬은 정반대였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품만 잡다가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요압과 그 수하에 있는 사람들은 하이에나 같은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기득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보복하고, 기회만 있으면 물어뜯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순간적으로 돌변하는 사람들이었다.

-다윗은 충분히 슬퍼함으로 인심을 추스른 사람이다.

-여기에서 가장 감정적으로 과썸한 존재가 요압이었다.

-그는 아마사를 군장으로 삼지만 요압의 방해로 죽임을 당한다.

- 요압은 진정으로 다윗을 위하는 장수는 아니었다.
- 그는 후에 아도나이에 붙어 반역하게 된다.
- 그리고 지혜로운 솔로몬에게 처형을 당하게 된다.

-다윗은 수치를 슬퍼하였지만, 지혜롭고 조심스럽게 수치를 이겨 나갔다.